

경북도, 내년 예산 10조 돌파... 코로나 대응·경제회복 집중

복지·보건 분야 4조663억 반영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 투자
일자리·민생안정 등 3481억 배분

경북도는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9조6355억원보다 1조193억원(10.6%)이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일반회계가 9조3320억원으로 올해보다 8870억원(10.5%), 특별회계가 1조3228억원으로 올해보다 1323억원(11.1%)이 늘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과 경제활력 회복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경북도청 전경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에 3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천238억원, 스마트병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에 844억원, 언택트 산업에 159억원을 배정했다.

SOC 분야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9565억원, 코로나19 방역과 지진·태

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에 9367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민생안정, 기업지원에는 3481억원을 배분했다.

유교·가야·신라 3대 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에 4663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보건분야에는 4조663억원, 농업과 농촌 등 예산은 1조345억원을 반

영했다.

도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자체 세입이 감소하고 국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 재원 1천630억 원은 부득이하게 내외부 차입으로 충당했다.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 국비 확보에 힘을 쏟아 올해보다 10.6% 늘어난 예산을 편성해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상주향교 대성전

상주시

상주향교 대성전 보물 지정

경북 상주향교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상주시는 문화재청이 조선 후기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상주향교 대성전, 동·서무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대성전은 전면을 개방한 전외 개방형으로,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보물 제141호) 다음으로 큰 규모다.

고려 때 12목에 학교를 설치하라는 조정의 명에 따라 창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문화 유산이다.

/상주(경북)=김희경 기자 gi2136@



부산시 “유엔참전용사의 노고 기억해주세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전 세계의 동시 묵념 및 추모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11일 오전 11시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이 시간 부산 전역에는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사진은 부산 유엔기념공원 전경.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시, ‘AI스타트업 캠프’ 운영

광주전남중기청 구청사 리모델링 인적·물적 인프라 갖춘 운영기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광주 AI스타트업 캠프’가 위탁 운영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광주 AI스타트업 캠프’를 운영할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운영기관을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AI스타트업캠프는 광주 농성동에 소재한 중기청 구청사 본관 4층과 별관 3층을 리모델링해 오는 2021년 7월 문을 연다.

총 3724㎡ 공간에는 창업자,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이 집약된 AI 중심의 개방형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위탁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 보육,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이 가능한 법



‘나라키움 광주신청사’ 전경. /광주전남중기청

인 또는 단체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입주기업 선정·보육, 창업상담, 소통 공간 운영, 입주지원기관 모집·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7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여수시, 진남테니스장 전천후 기능보강

국제대회·생활체육 저변 확대 모색

전남 여수에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테니스장이 보강돼 국제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시는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에 국비 12억 원, 시비 34억 원 등 총 46억 원을 들여 전천후 구장(4면) 2993㎡, 메인 코트(1면) 282㎡, 백보드(1면) 240㎡ 등을 보강했다고 10일 밝혔다.

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는 진남테니



진남테니스장

/여수시

스장 내 기존 클레이코트 6면을 하드코트 5면으로 보강하면서, 실외 메인 코트 1면과 막 구조의 전천후 구장 4면을 조성했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

영광군,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브랜드쌀·가축전염병 방역 등 성과

전남 영광군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영광군은 차별화된 농정시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군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연이은 최우수 선정은 민선6기부터 7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소득 작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이번 평가에서 영광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유통, 환경친화형 축산, 가축전염병 방역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광(전남)=은하수 기자 ehs1203@

“전통시장서 장보고 집 앞에서 받으세요”

영양군 장보기·배송서비스 각광

영양군이 운영하는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선7기의 생활밀착형 정책인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는 지역마트 등에서 실시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한 전통시장만의 장보기·배송서비스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제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영양시장 상인회에서 시범 운영하여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적극 개선·반영하여 올해 1월 정식운영을 시작해 월 평균 380여건의 배송성과를



영양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거두는 등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집 앞까지 배달하여, 교통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여 시장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장을 보기 힘든 젊은 층까지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영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안동시는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전용면적 26㎡)’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0년 10월 30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1순위-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2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나주시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나주시는 지난 9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농업·농촌 활성화 ▲친환경농업 추진 ▲식량원예작물 생산추진 등 농정업무 전반에 걸친 총 7개 분야 35개 항목을 평가 한다.

시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추진, 농업정책보험 가입, 원예특작국·도비 공모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